

잉여현금흐름 40% 배당... 자사주 매입... R&D에 4조 투자

# 주주가치·미래기술 극대화... 모비스, 두 날개로 난다

## 현대모비스 정기이사회

3월 임기만료 정의선 대표 재선임  
사외이사에 장영우 영앤코 대표추천  
다음달 주총부터 전자투표제 도입

현대모비스가 올해 주주가치 극대화와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모비스는 1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이행 ▲전자투표제 도입 ▲미래 기업가치 위한 투자 확대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항 중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안건은 다음달 18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상정된다.

현대모비스의 주주가치 극대화 방안은 4차산업 등 미래차시대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자율주행·전동화 등 핵심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대모비스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도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의섭 현대모비스 IR담당 상무는 "이사회 다양성,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해 신속하고 책임있는 선진화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해 주주와 시장에 확고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주주추천 사외이사 선임...시장 요구 반영

현대모비스는 주주권익 보호담당 사외이사 후보로 장영우 영앤코 대표를 최종 추천했다. 장영우 사외이사 후보는 메릴린치, 골드만삭스를 거쳐, UB S 서울지점 대표 등을 역임한 재무전문가다. 30여년에 가까운 관련 업계 경험과 폭 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사회에 전달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초 주주 추천 방식으로 사외이사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이에 여러 명의 후보들이 개인과 기관들로부터 추천되었고, 독립된 외부자



현대모비스 CES 2020 내 전시부스.

문단 심사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장영우 대표를 최종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다음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선임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 사외이사를 2명이나 선임한 데 이어, 이번 주주추천 사외이사를 선임함에 따라 선진화된 경영시스템을 한층 강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현대모비스 이사회는 총 9명으로, 4명의 사내이사와 5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사외이사는 각각 기술, 재무, 산업, 물류, 경영 등 글로벌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다. 새로 선임하는 장영우 후보 역시 재무전문가로서 주주가치 개선과 이에 필요한

정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정의선 대표이사가 재선임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의 수석부회장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현대모비스의 미래차 핵심부문을 이끌어가는 중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업계 최고 수준의 전략 및 사업 기획 전문가인 칼 토마스 노이먼 현 사외이사도 3년 임기의 사외이사로 재선임한다.

현대모비스는 다음달 열리는 주주총회부터 주주들이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 등 소액주주에 주주총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 ◆중장기 주주가치 극대화 방안 적극 수행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올해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배당정책은 연간 창출 잉여현금흐름(FCF)의 20~40% 수준으로, 배당은 보통주 기준 연간 4000원을 유지한다.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분기 배당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앞으로도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통해 주주와의 신뢰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한 자사주 매입계획에 따라 3년간 총 1조원 규모인 매입금액의 1/3 수준을 올해에도 매입한다. 자사주 소각도 이어간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에 걸쳐 각각 200만주와 25만 2000주를 소각했고, 올해 추가매입분 중 약 625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소각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미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향후 3년간 투자재원 사용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미래기술 연구개발과 M&A 등에 3~4조 원, 생산능력 증대를 통한 경쟁력확보를 위해 4조 원, 주주환원에 1조 원 규모를 각각 투입하고, 안전 및 위기대응을 위한 4조원의 현금보유 등이 골자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LG 올레드TV, 美서 '가성비 1위' 선정

美 컨슈머리포트, 250개 제품 평가

LG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가 미국에서 2년 연속 가성비가 가장 좋은 대형 TV라는 평가를 받았다.

16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유력 소비자 매체 컨슈머리포트는 최근 '최고의 대형 할인 TV' 상위 5개 제품을 발표했다.

컨슈머리포트는 총 250여개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TV를 선정했다.

1위는 LG전자의 65인치 올레드 TV(모델명 OLED65B9PUA)로 87점을 기록했다. 컨슈머리포트는 지난해 5월에도 LG 올레드 TV(모델명 OLED65B8PUA)를 가성비 1위 대형 TV로 꼽은



LG전자의 올레드TV.

/LG전자

바 있다.

컨슈머리포트는 "이렇게 비싼 TV를 해당 목록에 올린 게 의아하겠지만, 최고의 성능을 갖춘 4K 올레드 TV를 찾는다면 그중에서 이 제품이 가장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 미국법인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올레드 TV 모델은 현지에서 1천 899.99달러(약 225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

## LGU+, 코로나19 예방수칙 송출

'U+tv' 448만 이용자 대상 광고

LG유플러스는 자사 인터넷TV(IPTV)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수칙 광고를 무상으로 송출한다고 16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내달 중순까지 약 한 달간 'U+tv'를 이용하는 448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제작한 코

로나19 예방수칙 광고를 선보인다. 이용자들은 주문형비디오(VOD) 시청 전 다운로드 시 나오는 광고 시간에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번 광고는 30초 정도로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위생수칙부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와 같은 국민 행동수칙 등이 소개된다. /김나민 기자 silkni@

## “日올림픽, 韓 재도약 기회로... 수출 지원”

### 코트라 日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 프리미엄 소비재·ICT서비스 강화

KOTRA(코트라)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들이 일본 시장에서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코트라는 지난 13일 일본 오사카에서 현지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코트라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도쿄올림픽 특수를 활용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진출을 다변화해 일본시장에서 국내기업들의 수출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본 지역 무역관장이 모두 모인 회의에서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진출 분야 다변화를 통해 일본시장을 다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대(對)일본 수출은 2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6.9% 줄었지만 전체 수출실적(-10.3%)에 비해 감소폭이 적었다. 대일 투자유치는 서비스업 투자 증가로 전년 대비 9.9% 늘어난 14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일본은 도쿄올림픽 개최, 지속되는 경기부양책, 안정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는 긍정적 신호지만 소비세율 인상 여파와 올림픽 개최 후유증 등 변수도 존재한다는 게 코트라 측 설명이다.



코트라가 13일 일본 오사카에서 일본 지역 무역·투자확대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왼쪽 다섯 번째)이 회의에 참석한 일본 지역 무역관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전략회의에서 코트라는 ▲올림픽 특수와 수출 유망품목에 지원역량 집중 ▲신(新)수출방식과 신수출동력을 활용한 수출구조 개선 ▲경제체질 강화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일본 진출 전략을 도출했다.

우선 도쿄올림픽 특수를 겨냥해서는 프리미엄 소비재와 ICT 서비스의 일본 시장 진출을 강화한다. 한류 연계 소비재 수출상담회를 추진하고 5G, 사물인터넷(IoT) 등 진출 유망 ICT 분야의 협력 활성화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는 무역관별 핵심 산업과 연계한 신규 수요 발굴에 힘쓰기로 했다.

수출 방식에 있어서도 클라우드펀딩과 온라인 플랫폼 활용으로 온·오프라인 사업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수출동력을 만들어내

기 위해 의료·바이오 산업의 일본시장 진출도 강화한다. 또한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 수요기업, 지자체 타깃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일본 벤처붐을 활용한 국내 스타트업 대상 재무적 투자 유치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코트라는 일본내 우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 중이다. 향후에도 국내 대학의 일본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강화를 대 응할 계획이다.

권평오 코트라 사장은 "한·일 관계경색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진출 분야를 다변화하겠다"며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양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을 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